

## 대전시, 3000억대 日 투자유치



시는 일본을 방문중인 박성호 시장 방문단이 지난 6월 9일 도쿄 우리쿠아오아마 호텔에서 혼조그룹의 혼조 료이치 대표이사, (주)람포(LAMPO) 기도 요시토 대표이사 등과 스마트 시티 및 대전 역세권 일원에 국제규모 호텔 건립을 추진키로 투자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혼조그룹은 의향서를 통해 유성구 도룡동 스마트 시티 내 1만 1000㎡(약 3300여평) 및 상업지구 1만 1000㎡에 2012년까지 2억 달러(한화 2000억원)를 투자해 1000실 규모의 국제규모 호텔을 건립하고 상업지구를 개발키로 했다.

(주)람포(LAMPO)는 대전 역세권에 비즈니스 호텔을 건립하고 추후 대전시청 인근이나 유성지역 등 2-3곳에 추가 건립을 추진키로 했다.

운영회사는 도요코인(주)로 정하고 규모는 개당 약 500실, 5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특히 람포측은 2009년 9월 IAC(국제항공 우주연합총회) 이전까지 호텔 건립을 완료키로 약속해 대전의 국제회의 산업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에따라 이들 두 회사와 호텔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지 알선과 각종 인·허가 등 행정지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성호 시장은 이 자리에서 “혼조그룹은 물론 (주)람포가 추진하는 대전지역 내 호텔 건립이 조속히 가시화되길 기대한다”며 “대전시는 이를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혼조그룹 혼조 료이치 대표이사는 “과학기술도시 대전의 발전 가능성에 기대가 크다”며 “호텔 건립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전시는 물론 스마트 시티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김창환 투자통상본부장, 박월훈 도시건설방재국장, 임묵 관광문화재과장 등 대전시 대표단과 김재한 KOTRA 일본지역본부장, 혼조그룹 혼조 료이치 대표 및 람포 기도 요시토 대표 등 양 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시는 이번 투자의향서 체결로 스마트 시티

개발 탄력과 함께 컨벤션 센터 개관 시점에 맞춘 국제회의 인프라 구축으로 국제회의의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대전지방경찰청 7월 3일 개청



대전시민들의 오랜 숙원이던 대전지방경찰청이 지난 7월 3일 문을 열었다.

개청식은 중구 선화동 갤러리아 동백점 인근 동양종합금융빌딩에서 열렸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오는 2009년 둔산동 신청사로 이전하기 전까지 이 건물 7, 8, 9층을 임시청사로 쓴다.

조직은 청장·차장을 포함, 6개과 3담당관제로 운영된다. 산하에는 경찰서가 중부, 동부, 서부, 북부, 둔산 등 5곳이고, 17개 지구대, 정부대전청사경비대, 특공대, 경비대 기동1중대 등을 관할한다.

대전지방경찰청 개청은 광역시로서는 부산, 대구, 인천, 울산에 이어 같은 날 광주와 함께 다섯번째로 문을 열게 돼 대도시 치안수요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기대된다.

이번 지방경찰청 개청으로 대전광역시와 관할이 일치해 행정과 치안 등 150만 시민의 삶과 직결된 양 기관 간 원활한 업무협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전지방경찰청 개청으로 교통치안, 관광치안 등 대도시 치안수요를 반영한 도시형 맞춤 치안서비스와 함께 앞으로 자치경찰제 시행 등에도 원활한 대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대전권 상생을 위하여, G-9 프로젝트



세계 발전을 위해 서방 선진 8개국 정상회담인 G-8 이었다면 대전인접 8개 시·군의 상생을 위한 G-9이 가동한다.

G-9은 대전광역시와 연접한 8개 시·군이 상생의 발전을 위해 9개 지방정부(자치단체)가 손잡고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한다는 의미다.

대전광역시가 주도하는 G-9 프로젝트가 그동안 실무접촉을 통해 입장을 정리한 26개

공동협력사업이 확정돼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

G-9은 지난 5월 초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해 대전시와 인접한 지리적 환경으로 대전을 생활권으로 하는 8개 시·군 자치단체가 대전시와 공동협력 조인식을 갖고 출범했다.

이어 곧바로 실무협의회를 발족하고 28개 상호제안과제를 검토한 결과 이중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2개 사업을 제외한 26개 사업을 최종 확정해 이달부터 추진에 들어가기에 이르렀다.

G-9은 계룡시 상수도요금조정건과 영동군 민주지산 휴양시설 이용홍보건 추진을 이미 완료하고 영동군 국립국악원 유치 협조 건은 상호 중복으로, 연기군 화장장 사용료 인하 요청 건은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추진이 곤란한 사업으로 분류됐다.

특히, 8개 시·군의 날 및 명절을 전후한 농·특산물 판매전 개최, 시·군별 각종 축제 홍보지원체계 구축, 대청호·금강활용 공동발전방안 연구, 8개 시·군이 모두 참여하는 시내버스 노선 신설·조정,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도농교류 확대사업 등은 대전시의 주요업무로 시책화해 추진할 방침이다.

G-9 자치단체는 우선, 이달 20일부터 열리는 제1회 옥천포도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공동협력에 나서 대전시는 지하철 역사와 홈

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와 함께 일반시민 및 산하직원들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행차량을 지원하는 한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근 시·군의 하계휴양시설을 홍보해 이용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게 된다.

이밖에도 만인산 와인캐슬 건립, 수도권 기업 등유치 공조, 자연발생 유원지 편의시설 공동설치 등 26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앞으로도 공동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G-9은 대전시를 비롯한 5개 자치구와 대전을 생활권으로 하는 충남의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금산군, 연기군, 충북의 영동군, 보은군, 옥천군 등 8개 자치단체가 교통, 관광, 농산물 직거래 등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자는데 뜻을 같이하고 지난 5월 3일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조인식을 갖고 교류협력을 추진해오고 있는 모임체이다

## 로봇랜드 유치추진위 출범, EXPO 공원 '로봇 디즈니랜드'로



대전이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유치의 아픔을 딛고 로봇랜드 유치를 위해 마음을 다잡았다. ‘로봇랜드 유치 추진위원회 출범식’이 지난 7월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출범식에는 김원웅 의원을 제외한 지역 국회의원 전원, 설동호 한밭대 총장 등 지역대학 대표 인사 7명, 박창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 등 국책출연연구소 원장 등 7명 등 유치추진 TF 팀 40여 명이 참석했다.

출범식 첫 순서는 TF팀 위원장 선출이었다. 설동호 총장이 서남표 KAIST 원장을 추천했다. 서 총장은 출범식에는 참가하지 못했지만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위원장에 추대됐다.

“엑스포과학공원 전체를 로봇테마파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신규시설인 첨단과학관, 교통체험센터, 자기부상열차 등을 제외한 모든 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철거할 예정입니다. 또 갑천문화관광벨트와 연계해 한밭수목원엔 로봇동물원과 로봇곤충 등의 전시물을 설치하고, 예술의 전당에는 로봇공연장을 만들고, 미술관에는 안내로봇을 배치할 계획입니다(이진옥 경제과학국장).”

“산자부가 원하는 아이템이 테마파크와 로봇양산 체제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로봇랜드 방문객 목표를 연간 400만 명으로 정하고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30년 된 에버랜드의 관광객이 연간 900만 명인만큼, 이 인원이라

면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엑스포과학공원 내 주차장에는 숙박시설을 건설하고, 과학공원은 로봇게임, 로봇영상, 생활 속 로봇을 주제로 하는 전시관을 만들고, 로봇을 이용한 국내 최초의 놀이시설을 건설하는 밑그림을 그렸습니다(권지형 박사).”

이진옥 경제과학국장이 추진상황을 보고한 후, 용역기획사 대표인 권지형 박사가 조성안을 발표했다.

“지난번 자기부상열차 노선 유치활동 때도 그랬지만, 유치제안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순간 유치 순위가 결정된다고 봐야합니다. 지역 정치인들도 총력을 기울이겠지만 국책사업 유치 시,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비중이 낮아지고 투명도가 높아져서 제안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지금 시점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제안서 검토가 이루어져 공람이 이루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18일부터 제안서가 접수되는데 기획사가 만든 제안서를 보는 정도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각종 국책사업 유치 시에는 제안서를 검토하는 소위원회가 설립돼야 하고, 대전시민 전체의 아이디어를 수집해 참신한 내용도 제안서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현행대로 대전시가 기획하고 기획사에서 만들어 제출하는 수준이면 로봇랜드 유치는 불안합니다(선병렬 국회의원).”

유치추진위원회 위원 중 한 사람인 선병렬

위원은 보고를 받은 후 지금은 유치추진위원회 출범식이 진행될 시기가 아니라, 위원들이 전문가의 검토가 끝난 제안서를 공람해야 할 시기라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대전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선 의원의 의견에 수긍을 하며 다음번 국책사업 유치 때는 보다 빠른 행보를 보일 것을 약속했다.

출범식에는 로봇랜드 성공 유치를 위한 든든한 지원자가 출범식의 대미를 장식했다. 인공지능 로봇 '휴보'가 홍보대사에 위촉됐다. 전원을 공급받은 휴보가 유연하게 손과 발을 움직이며 위촉장을 수여 받아, 로봇랜드 성공 유치의 희망을 밝혔다.